

1년

김학인 선생

김학인 (원명 김 와실리 이와노위취) 선생은 1913년에 원종연강 연해주에서 탄생하였다. 원종으로 복해 한인들의 강제이주시에 김학인 선생은 카자흐 공화국에 실려왔다.

김학인 선생은 1938년에 알라야다 시에있는 "기르브" 영칭 카자흐 국립종합대학^{법학}부를 1941년에 졸업하였다.

대학을 필한뒤 카자흐 공화국 크름올다 시에 화적받아 시검찰노 예심원으로 1941년 복해 일하시게 되었다.

김학인 선생은 1947년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의 결정을 받아 조선민주공화국에 국제공산당의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도착하였다.

북한에 도착한 김학인 선생은 경희안전성에서 사회안전보장을 일하였으며 국가를 복해 조국의 군사행동을 준비하였다. 알타이 시의 사상검열투쟁이 강화에 따라 김학인 선생은 재정성 복상으로 전근되어 1973년까지 일하시어 사회보장 연구생활에 참여했다.

김학인 선생은 조선정부와 소련정부의 많은 훈장을 수여 받았다.

2000년 1월 12일 하늬켄트에서.